

## 사무엘기하 개요

사무엘기하는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인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 (사무엘기하 1 장)
2. 다윗 왕조 (2-6 장):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이미 왕이 될 자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기상 16 장),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망명자로 지냈습니다.
  -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2:4). 다윗이 30 세 되던 때입니다.
  - 2) 그리고 7 년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와 그를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삼습니다 (5:3)
  - 3) 다윗은 이제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옵니다 (6 장).
  - 4) 사무엘기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의 왕조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5:11). 또 다윗도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왕조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5:12).
3. 다윗 언약 (7 장)
  - 1)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7:11 후반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 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7:16).
  - 2) 다윗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집안에 이러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18-29).

- 3)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 4. 다윗의 승리 (8-10 장)

- 1)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숙적들을 이기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돔, 암몬, 시리아 등을 이기고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북으로 유브라데스강 북부에까지 다스렸습니다.
- 2) 사무엘기하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8: 14 후반절).

#### 5. 다윗의 실패 (11-24 장)

- 1) 다윗과 밋세바: 다윗은 이런 성공의 절정에서 밋세바와 동침하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11-12 장).
- 2) 이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신의 아버지 다윗왕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를 피해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패배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13-18 장).
- 3) 사무엘기하 마지막 장들은 남북 지파간의 갈등과 세바의 반역, 흉년, 그리고 다윗의 인구 조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일들을 기록하며 맺고 있습니다 (19-24 장).
- 4) 하지만 22 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8 편과 내용이 거의 같은 22 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함께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23 장 전반부에서는 자신과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고, 23 장 후반부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그 용사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기에 다윗의 승리가 가능했음을 말해 줍니다.